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with
Adult Attachment, Anxiety,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Who are Rearing Preschoolers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문영경*

박사과정 민현숙**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

Doctoral Course : Moon, Young-Kyung

Doctoral Course : Min, Hyun-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elf-reported adult attachment, anxiety,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and the rearing of preschoolers. Based on a sample of 96 young mothers, this study demonst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a mother's self-report of attachment avoidance and attachment anxiety, anxiety,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And also, the result showed that the greatest portion of attachment classification answered by mothers was secure attachment, and the portion of preoccupied and dismissing attachment was the same. It is also shown that mother's anxiety was different depending on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s.

▲주요어(Key Words) : 성인애착(adult attachment), 불안(anxiety), 우울(depression),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I. 서론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양육에 따른 과부담과 전통적 가치

관과의 불일치로 인한 일상적 문제들로부터 스트레스, 심리적 부적응과 욕구충족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성옥, 1997). 특히, 유아기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고, 또래와 기관으로의 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가정 외의 여러 체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Morris, 2007; Waizenhofer, 2004),

* 주저자 : 문영경 (E-mail : moonyk93@naver.com)

** 교신저자 : 민현숙 (E-mail : minhs@hanmail.net)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는 지속적인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유아가 발달하는 동안에도 유아의 부적응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졌다(Crinic et al., 2005). 또한 불안하고, 우울하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Crick & Booth, 1991), 그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낮고(최정미·우희정, 2004), 불안, 우울(문경주·오경자, 2002) 및 부적응(정미경·김영희, 2003)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라면서 경험한 심리적, 정서적 환경이 성인의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다는 가정에 따라, 성인이 경험한 과거 양육 환경과 불안 및 우울과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학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양육자와의 초기 경험에 관계된 현재의 마음 상태를 Adult Attachment Interview(George et al., 1985)를 통해 측정하고, 성인애착의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다름을 밝히고 있다. AAI의 분류에 따라 성인애착은 자율형, 거부형, 몰입형, 미해결-비조직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van IJzendoorn과 Bakermans-

Kranenburg(1996)는 임상 집단에서의 AAI의 범주 분포가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 집단에서 관찰되는 범주의 분포와 차이가 있고, 임상집단이 일반집단 보다 불안정 애착 표상이 많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몰입형 애착이 불안 및 우울과 관계가 있으며, 거부형 애착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인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Allen et al., 1996; Fonagy et al., 1996; Patrick et al., 1994; Rosenstein & Horowitz, 1996). 성인애착을 연구하는 또 다른 관점인 사회-성격 심리학 분야에서는 성인기에 형성되는 낭만적 애착 역시 일종의 애착관계로 보고, 성인기의 이성 관계는 생애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 질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풀이 된다는 가정 하에 애착에 관계된 생각과 느낌을 묘사하는 자기 보고적 측정도구들(Bartholomew, 1990; Brennan et al., 1998; Cassidy & Shaver, 1999; Hazan & Shaver, 1987)을 사용하여 성인애착을 측정한다. 특히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자기에 대한 모델과 타인에 대한 모델의 두가지 내적 작동 모델이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에 따라, 각각에 대한 2x2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4개의 애착유형을 제안하고, 성인애착의 유형이 안정형, 거부적-회피형, 두려운-회피형, 몰입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rennan 등(1998)은 지난 20여 년간 존재해 온 많은 성인애착 자기 보고 척도들(Bartholomew, 1990;

Brennan & Shaver, 1995; Brennan et al., 1998; Collins & Read, 1990; Feeney et al., 1994; Fraley et al., 2000; Griffin & Bartholomew, 1994; Hazan & Shaver, 1987; Simplon, 1990)을 요인 분석하여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제안한 바와 같이 성인애착이 친밀함과 의존성으로 인한 독립성 침해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정도인 애착-회피와,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정도인 애착-불안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요인으로 나뉘어 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그 역시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각각의 높고 낮음에 대한 2x2 조합을 사용하여 애착 유형을 Bartholomew와 Horowitz(1991)와 같이 안정형, 거부형, 몰입형, 두려움형의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질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성인기에 형성되는 낭만적 애착 역시 불안 및 우울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데, Mickelson 등(1998)은 불안정 성인애착이 정신분열증을 제외한 DSM-III의 모든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 하였으며,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의 각각의 요인은 특히 우울증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Hankin et al., 2005).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에 대한 각각의 질적 요인은 최근 각기 다른 독립된 경로로 사회적 결과에 이르며, 이들이 성인의 적응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이 서로 다름이 밝혀지고 있어, 성인애착의 중재를 통한 성인의 적응 증진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신지욱, 2006; Wei et al., 2005).

애착표상은 일생동안 잘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특성이 있고, 애착에 관계된 생각과 느낌의 측정을 통한 어머니의 성인애착 역시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계숙·이은혜, 1998). 따라서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유아의 발달과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추론되며, 실제 자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그 특성이 어떠한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이지연·임성문, 2006; 정민 등, 2006)이나 성인(신노라·안창일, 2004)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건강성과 부부관계(김민희·민경완, 2007; 유계숙·이은혜, 1998)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특성으로, 개인의 내 외적 요구가 이를 다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경험한다(김윤정, 1997). 안지영(2001)은 자녀와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어머니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양육스트레스로 정의하고, 부모 자신 뿐 아니라 자녀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과의 일상적인 교류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인 따분함, 신경질, 성급함, 당황, 좌절감 등의 일상적 스트레스(강희경·조복희, 1999)로, 부모의 인성요소와 자녀의 특성요소 및 여러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부모들은 자신의 인지적 특성에 따라 여러 사건들을 해석하고, 정서와 행동을 조직하여,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문혁준, 2004; 안지영, 2001), 성인의 인지 왜곡, 성격특성, 자기조절 전략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김광은 2004; 장희숙, 2001; Kobak et al., 1988, 2006)과 성인애착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 어머니의 성인애착을 분류하여, 이들의 성인애착유형의 분포와 그 특성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를 양육하는 우리나라 어머니의 성인애착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혀,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탐색 및 중재 및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어머니의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성인애착의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어떠한가?
 - [2-1]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의 분포는 어떠한가?
 - [2-2]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 3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4, 5세 유아(남아 50명, 여아 46명; 평균연령 55개월, 범위 48개월-62개월)의 어머니 96명이다. 서울 및 수도권 3개 유아교육기관을 연구자가 방문하여 만 4, 5세 유아의 담임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의 응답 요령을 설명한 후,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를 묻는 어머니용 질문지를 교부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담임교사의 지도로 원생을 통해 어머니에게 배부하였으며, 분석 가능한 질문지를 제출한 어머니 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대부분(90.6%)이었으며, 대졸(71.9%), 전업주부(77%)가 가장 많았다.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38.5%, 400만원 이상이 45%로 나타나, 연구대상의 83.3%가 월 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은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성인애착 척도, 불안 척도, 우울 척도, 양육스트레스 척도였다.

1) 성인애착

어머니의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Fraley 등(2000)이 개발한 질문지를 김성현(2004)이 번안하여 확증적 요인 분석과 문항반응을 통하여 타당화한 친밀 관계 경험검사(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Revised: ECR-R)를 사용하였다. Brennan 등(1998)은 지금까지 자기보고 애착측정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이미 알려진 회피와 불안 특성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명(%)	구 분		명(%)
유아의 성	남	50(52.1%)	어머니의 직업	전문직	8(8.3%)
	여	46(47.9%)		사무직및 관리직	7(7.3%)
유아의 연령	4세	74(87.3%)		판매 및 서비스직	1(1.0%)
	5세	22(12.7%)		아르바이트/기타	6(6.3%)
어머니의 연령	20-29세	2(2.1%)	주 부	74(77.1%)	
	30-39세	87(90.6%)	가계 총소득	200만 이하	1(1.0%)
	40-49세	7(7.3%)		201만-300만 이하	15(15.6%)
어머니의 학력	고 졸	13(13.5%)		301만-400만 이하	37(38.5%)
	대 졸	69(71.9%)	401만 이상	43(44.8%)	
	대학원이상	14(14.6%)			

에 상응하는 두 가지 본질적인 독립요인을 산출하였고, 두 가지 요인의 점수를 4개의 그룹으로 근접시켰을 때 4개의 그룹은 개념적으로 Bartholomew의 애착 4유형에 상응하였으며 ECR의 4개 그룹은 Bartholomew의 4범주 척도에서 분류되는 유형들 보다 더욱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이 척도는 7점 Likert 척도로, 총 36개의 문항으로 18문항은 애착-회피를 측정하고, 18문항은 애착-불안을 측정한다. 애착 회피는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애착 불안은 “종종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을까봐 걱정된다”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내게 관심을 가져 주지 않을 까 봐 걱정된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척도는 각각 18~126점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15, 22, 25, 29, 33, 35번의 문항은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애착-회피 Cronbach $\alpha' = .70$, 애착-불안 Cronbach's $\alpha = .79$ 이었다.

2) 불안

어머니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1975)가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 성인의 불안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STAI)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상태불안 20문항과 특성불안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 불안은 ‘지금-현재’ 느끼는 일시적인 불안상태를 측정하는 반면에, 특성불안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교적 지속적인 불안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 20문항을 사용하였고, “나는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한다”와 “나는 요즘의 걱정거리나 관심거리를 생각만 하면 긴장되거나 어쩔할 바를 모른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대단히 그렇다’의 4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20~80점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7개의 긍정형 문항(1, 6, 7, 10, 13, 16, 19)은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3) 우울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1967)이 개발한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를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도구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의 점수가 주어지게 되며, 0점에서 63점까지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4)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ri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의 질문지(DHS)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안지영(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마다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가 주어지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나 음식물을 계속 치워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18점에서 90점의 범위를 갖는다. 각 문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어머니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이 척도는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김미숙·문혁준, 2005; 박성연·케네스루빈, 2008; 조영숙, 2008)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 신뢰성이 검증된 바 있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의 고찰에 앞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다. 어머니의 성인애착,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등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구체적인 연구문제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편상관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의 최소값, 최대값,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자들은 애착-불안에 비하여 애착-회피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불안, 양육스트레스는 중간 정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어머니의 우울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변인의 문항 점수 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수	가능한 문항점수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애착-회피	1~7	2.89	5	3.79	.45
애착-불안	1~7	2.11	5.67	3.19	.69
불 안	1~4	1.05	3.60	2.19	.47
우 울	0~3	0	1.19	.37	.26
양육스트레스	1~5	1	4.39	2.51	.65

<표 3> 애착-회피, 애착-불안과 불안, 우울, 양육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애착요인				양육스트레스
	애착-회피	애착-불안	불안	우울	
애착-회피	1				
애착-불안	.59***	1			
불안	.48**	.61***	1		
우울	.23*	.33**	.61**	1	
양육스트레스	.30***	.41***	.46***	.30**	1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애착-회피를 기준으로 한 편상관분석 결과(통제변인: 애착-불안)

	애착-회피	불 안	우 울	양육스트레스
애착-회피	1			
불안	.09	1		
우울	.04	.55***	1	
양육스트레스	.07	.28**	.19	1

* $p < .05$, *** $p < .001$

1. 애착-회피, 애착-불안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애착-회피는 애착-불안($y = .59, p < .001$), 불안($y = .48, p < .01$), 우울($y = .23, p < .05$), 그리고 양육스트레스($y = .30, p < .001$)와 정적인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애착-불안은 불안($y = .61, p < .001$), 우울($y = .33, p < .01$), 그리고 양육스트레스($y = .41, p < .0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친밀함과 의존성으로 인한 독립성 침해에 대한 공포를 경험할수록,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공포가 높고, 어머니의 불안, 우울, 양육스트레스도 높아지며, 어머니가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공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불안, 우울, 양육스트레스도 높았다.

그러나,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강한 상관을 보여($y = .59, p < .001$),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과대

추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애착-회피를 기준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애착-불안 수준을 통제하고, 애착-불안을 기준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애착-회피 수준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편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al test)를 실시하였다.

<표 4>와 같이, 애착-불안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애착-회피, 불안, 우울,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애착-회피는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와 같이, 애착-회피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애착-불안, 불안, 우울,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애착-불안은 불안($y = .46, p < .001$), 우울($y = .25, p < .05$), 그리고 양육스트레스($y = .30, p < .001$)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어머니의 애착-회피,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불안,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져,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 모두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차원의 성인애착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공포

<표 5> 애착-불안을 기준으로 한 편상관분석 결과(통제변인: 애착-회피)

	애착-불안	불안	우울	양육스트레스
애착-불안	1			
불안	.46***	1		
우울	.25*	.59***	1	
양육스트레스	.30**	.46***	.25*	1

*p<.05, **p<.01, ***p<.001

<표 6> 성인애착 유형 분류

	국내연구(측정도구)			국외연구(측정도구)		
	황경옥, 2002(RQ)	신지옥, 2006 (ECR-R)	본 연구, 2008 (ECR-R)	Batholomew & Horowitz, 1991 (RQ)	Brennan et al. 1998 (ECR)	Serale & Meara. 1999 (RQ)
안정형(%)	35.98	32	38.5	47	30.4	40
몰입형(%)	35.73	23.7	16.7	14	20.8	19
거부형(%)	12.73	14	16.7	18	20.8	17
두려움형(%)	14.54	30.3	28.1	21	24.4	24

<표 7>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의 분산분석 결과

	안정형(n=37)	몰입형(n=16)	거부형(n=16)	두려움형(n=27)	전체(n=96)	F
	M(SD)	M(SD)	M(SD)	M(SD)	M(SD)	
불안	1.90(.39)a	2.37(.22)b	2.17(.37)a	2.48(.50)b	2.19(.47)	12.747***
우울	.33(.25)	.41(.21)	.29(.20)	.44(.31)	.36(.26)	1.135
양육스트레스	2.41(.69)	2.29(.61)	2.43(.51)	2.84(.58)	2.51(.65)	2.096*

*p<.05, ***p<.001.

주: a, b는 scheffe 검증 결과, p<.001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인 애착-불안만이 불안,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불안, 우울,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함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

1)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 분류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애착-회피 차원과 애착-불안 차원의 조합으로 애착 유형을 분류하였다. Brennan 등(1998)과 신지옥(2006)이 분류한 방식과 같이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각각의 평균점(애착-회피 M = 3.79, 애착-불안 M = 3.19)을 기준으로 하여,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모두 평균보다 낮으면 안정형, 애착-회피가 평균보다 높고 애착-불안이 평균보다 낮으면 거부형, 애착-회피는 평균보다 낮고 애착-불안이 평균보다 높으면 몰입형,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모두 평균보다 높으면 두려움형

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안정형이 38.5%(n=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두려움형 28.1%(n=27), 몰입형과 거부형 16.7%(n= 16)순으로 나타났다. <표 6>은 국내외의 성인애착 유형 분류와 본 연구의 성인애착 유형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2)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 우울, 그리고 양육스트레스가 어떠한 지 평균을 중심으로 비교해 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어머니의 불안은 두려움형 애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몰입형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의 경우, 두려움형 애착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몰입형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두려움형 애착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거부형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형 어머니들은 불안, 우울,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비교적 낮았다.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과 같이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F = 12.747, p < .001$) 및 양육스트레스($F = 2.096, p < .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어머니의 불안만이 차이가 나타나, 안정형과 거부형 애착 유형이 몰입형과 두려움형 애착유형보다 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성인애착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고,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 분포는 어떠한지, 그리고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96명의 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과 어머니의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탐색해 본 결과 성인애착의 두 요인, 즉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모두 어머니의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과 DSM-III와의 관련을 보고한 Mickelson 등(1998)의 연구결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보고한 Roberts 등(1996) 및 Hankin 등(2005)의 연구결과, 우울, 불안과의 관계를 보고한 이혜진(2004)의 연구결과, 그리고, 면접을 통하여 측정한 몰입형 애착과 우울, 불안과 관련성을 발견한 Dozier 등(1999)의 연구결과와 일관하므로, 어머니의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모두 어머니의 불안 및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양육스트레스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조절 모델(Kobak et al., 2006)로 해석해 볼 수 있다. Kobak 등(2006)에 의하면, 안정형 애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불안정 애착은 삶의 도전에 직면할 때 대인적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며, 따라서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에서 김광은(2004)은 거부형과 두려움형 애착은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안정형 보다 낮고, 몰두형과 두려움형은 회피 전략을 더욱

많이 써, 효율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개념으로, 어머니가 우울하고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자녀와 상호작용 할 때 민감성이 떨어지며(박경자·권연희, 2002; Crnic & Greenberg, 1990),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거나(Wahler, 1980), 비일관적인 훈육(Lempers et al., 1989)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우울하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자아존중감이 낮고(최정미·우희정, 2004), 불안, 우울(문경주·오경자, 2002) 및 부적응(정미경·김영희, 2003)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어머니의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의 독립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애착-회피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애착-불안,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편상관 분석결과, 애착-불안은 불안, 우울,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모두와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애착-회피와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Bowlby(1973)는 안정적 돌봄을 받는 유아는 일시적으로 불안해도 곧 양육자가 달래줄 것이라는 믿음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만성적인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적어지나, 양육자가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받지 못한 유아는 양육자가 안심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자주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지지적인 환경에서도 불안해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장기적인 과민성과 불안은 불안 장애의 발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부모와의 따뜻하고 안정된 애착 관계를 통해 유아에게 외부의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분리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며, 완전한 독립된 개체로서 성장해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고,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공포가 강한 어머니는 관계에 대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으로 불안이 높을 수 있다. 이 외에도, Beck(1983)은 냉담하고 제한적인 부모의 양육이 우울에 취약한 성격적 특성 즉, '의존성(dependency)'과 '관계지향성(sociotropy)'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갖고 있는 성인은 타인과의 분리가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지지를 추구하기도 하며, 혹은 반대로 비판과 거부를 예상하여 관계 맺기를 회피하고, 이러한 성격적 특성이 우울에 취약하다고 밝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불안이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 일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애착-불안을 통제하였을 때, 어머니의 애착-회피와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비판과 거부를 예상하여 관계맺기 회피하는 성격적 특성이 우울증에 취약하다는 Beck(1983)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Allen 등(1996)은 몰입형 애착이 불안과 우울이 관련이 있으며, 회피형 애착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인 행동문제와 더욱 관련이 있다고 밝혀, 우울, 불안과 같은 특성은 애착-불안과 더욱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유아기 어머니의 애착 유형은 안정형 39.5%, 몰입형 16.7%, 거부형이 16.7%, 두려움형이 28.1%로 네 유형 중 안정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94% 가량이, 그리고 신혼기 주부의 83% 정도가 자신의 애착양식을 안정형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Howes et al., 1990; Senchak & Leonad, 1989), 본 연구에서 안정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기혼을 대상으로 한 연구대상의 특성일 수 있다. 그러나, 성인애착을 4 유형으로 나누어 비교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신지욱, 2006; 황경옥, 2002; Brennan et al., 1998)과 비교해 볼 때, 불안정 애착의 하위 유형에서는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김광은, 2004; 장취숙, 2000, 황경옥, 2002; 신지욱, 2006)의 경우 몰입형이 거부형 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하지 않았다. 신지욱(2006)은 우리나라에서 몰입형 애착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 관계중심주의 문화권에서 따른 문화의 차이 때문으로 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국외의 선행연구와 같이 몰입형과 거부형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므로, 추후 보다 많은 집단과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인애착 유형의 분포 및 그 특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 우울,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해 본 결과, 두려움형 애착, 몰입형 애착 유형 어머니들의 불안과 우울이 높았고, 두려움형 애착과 거부형 애착 유형의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애착-불안이 높은 집단이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며, 친밀함과 의존성으로 인한 독립성 침해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애착-회피가 높은 집단이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장애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Collins와 Read(1990)의 척도를 사용한 유희정 등(2004)의 연구에서, 안정애착 유형의 어머니가 회피형 애착 및 불안형 애착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회피형 애착 어머니들이 안정형 애착 어머니들보다 아동관련 스트레스가 높아,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혀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김광은(2004)은 거부형과 두려움형과 같이 애착-회피가 높은 집단은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안정형 보다 낮고, 특히, 두려움형은 회피 전략을 더욱 많이 써, 효율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두려움형과 거부형 집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애착-회피가 높은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겪을 때,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유계숙과 이은해(1989)는 회피형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의 질이 낮다고 보고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이 낮고 관계에 대해 통제 할 수 없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형 애착의 어머니들이 다른 애착 집단 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안감과 자율감에 대한 침해를 동시에 경험할 때, 자녀와의 관계를 스트레스로 지각하고, 어머니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학적 검증 결과, 성인 애착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만이 안정형과 거부형 애착유형과 몰입형, 두려움형 애착유형간 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 대상이 중류층 이상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울이 매우 낮아, 그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를 분석해 보고, 그 차이점을 명확히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에 따른 애착 유형 분류 및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나, 연구의 대상이 중류층 이상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주의를 요한다. 또한 연구결과에도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차이점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추후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유형을 분류해 보고 유형에 따른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의 분석과 그 차이점을 명확히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Dozier 등(1999)에 의하면 내적인 부적응 외에 회피형 애착과 유아의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인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보고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부적응 상태와 함께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같은 어머니의 행동 및 유아의 발달을 포함하여, 성인애착, 불안, 우울,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발달특성과 같은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인애착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기혼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이 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 본연구는 기혼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어머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어머니의 성인애착의 중재를 통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외에도, 불안정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매커니즘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진경·최혜경(2001).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1-24.
- 강희경·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 김광은(2004). 성인애착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문신·김광웅(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1), 3-13.
- 김미숙·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선희·오경자·박중규·이은정(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 김성현(2004). 친밀 관계 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옥희(2000).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문제행동 비교와 관련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정(1997). 자폐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미술활동 중심 집단상담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택·신동균(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 1223-1229.
- 문경주·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박경자·권연희(2002). 문제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과 관련된 변인: 결혼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애착안정성. **아동학회지**, 23(4), 53-70.
- 박성연·임희숙(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 박성연·케네스루빈(2008). 걸음마기 아동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109-124.
- 박성옥(1999). 취업상태 및 선호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미래유아교육학회지** 4, 73-90.
- 신노라·안창일(2004). 성인애착 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 양식, 사회적 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3(4), 949-968.
- 신지옥(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경자(2005). 애착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계숙·이은혜(1998). 성인의 애착양식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전업주부의 내적 표상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 15.
- 유희정·강연옥·이훈진(2004). 아동의 장애유형과 어머니 애착유형이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77-89.
- 이경숙·신의진·김혜연(1999). 아동의 정신병리와 어머니의 성인애착표상 유형(AAI)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1), 103-115.
- 이영호·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지연·임성문(2006).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우울과의 관계: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7(4), 969-984.
- 이혜진(2004). 부모애착, 행동역제, 성인애착이 초기 성인기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문선(2005). 기혼여성의 애착유형과 우울 및 부부문제와의 관계. **상담학 연구**, 6(3), 1011-1024.
- 장휘숙(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장휘숙(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15-130.
- 장휘숙(2001). 애착과 다섯가지 성격특성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105-119.
- 장희정(2005). 체벌에 대한 신념과 양육스트레스가 체벌행동을 매개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의 양육효능감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효정(2003).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메커니즘: 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 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3), 159-174.
- 정미경 · 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 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정민 · 이미라 · 노안영(2006).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7(4), 1023-1038.
- 정민현(2003). 애착 유형,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대인불안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윤주(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6(3), 73-85.
- 정혜승 · 김광웅(2001). 어머니 자신의 부모 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 애착과의 관계. **놀이치료 연구**, 4(1), 95-105.
- 조영숙(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간의 관련성 탐색.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정미 · 우희정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361-369.
- 한영민(2005).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경옥(2002). 대학생의 애착 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llen, J. P., Hauser, S. T. & Borman-Spurrell, E.(1996). Attachment theory a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equelae or severe adolescent psychopathology: An 11-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254-263.
- Bartholomew K. & Horowitz, L.(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new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artholomew, K.(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7, 147-178.
- Beck(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 New York: Haper & Row.
- Belsky, J.(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interaction in a family setting at one, three, and nine months. *Child Development*, 55, 692-705.
- Blatt S. J., Zeroff D. C.(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wo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527-562.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Y.: Basic Books.
- Brennan, K. A., & Shaver, P. R.(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67-283.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434-465). New York: Guilford.
- Cassidy J., & Shaver P. R.(1999).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Y.: Guilford Press.
-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33.
- Cooper, M. L., Shaver, P. R. Shaver, P. R, & Collins, N.(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474-483.
- Crick,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A., Gaze, C., & Hofman, C.(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17-132.
- Dozier, M., Stovall, K. C. Albus, K. E.(1999). Attach-

- ment and psychopathology in adulthoo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497-519). N.Y.: Guilford Press.
- Feeney, J. A., Nobler, P., & Hanrahan M.(1994). Assessing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s*. N.Y.: Guilford press.
- Fonagy, P., Leigh, T. Steele, M., Steele, H., Kennedy, R., Mattoon, G.,(1996). The relation of attachment status, psychiatric classification, and response to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22-31.
- Fraley, R. C. Waller, N. F. & Brennan, K. A.(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George, C. Kaplan, N., & Main, M.(1985).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 Griffin D. & Bartholomew, K.(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s: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430-445.
- Hankin, B. L. Kassel, J. D. and Abela, J. R. Z.(2005). Adult attachment dimensions and specificity of emotional distress symptoms: Prospective investigations of cognitive risk and interpersonal stress generation as mediating mechanis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136-151.
-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owes, P. Markman, H. & Lindahl, C.(1990). Contributions of attachment theory to the study of marriag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lation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Rochester, Rochester, N.Y.
- Kobak R. & Sceery, A.(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bak, R. Cassidy J. Lyons- Ruth, K., & Ziv, Y.(2006). Attachment, stress, and psychopathology: A developmental pathways model.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1: Theory and Method*(2nd ed., pp. 333-369).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Kobak, R.(1991) Attachment in marriage :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61-869.
- Mickelson, K. D. Kessler, R. C., Shaver P. R.(1998). Adult Attachment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92-1106.
- Mickelson, K. D., Kessler, R. C. & Shaver P. R.(1998). Adult Attachment in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92-1106.
- Morris, A. R.(2007). The role of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 361-388.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10-320.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10-320.
- Senchak, M. & Leonard, K. E.(1989). Attachment style, premarital relationship stages, and marital functioning among newlywed couples. Buffalo, N.Y.: Research Institute on Alcoholism.
- Simplon, J. A.(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Sroufe, L. A., Egeland, B., Carlson, E., & Collins, W. A.(2008).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The Minnesota Study of Risk and Adaptation from Birth to Adulthood*.: The Guilford Press.
- van IJzendoorn, M. H., & Bakermans-Kranenburg, M. J.(1996).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mothers, fathers, adolescents, and clinical groups: A meta-analytic search for normative dat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8-21.
- Wei, M. Vogel, David. L., Ku, T. Y., & R. A.(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4-24.

Weizenhofer, R. N.(2004). Unique and protective contributions of parenting and classroom processes to the self regulation and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preschool children attending head start progra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접수 일 : 2008년 07월 08일

심사 일 : 2008년 08월 04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0월 01일